

이지상의 '여행과 삶'



여행 후유증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행자들은 언젠가 돌아와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여행자들 대부분은 추억을 되새기며 흔들린다. 마음이 붓 뜬 상태에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설렘인데 그 여행이 푹 끊어지면서 똑같은 삶이 반복되니 우울해진다.

‘아, 다시 여행 떠나고 싶어’ 하며 여행의 추억을 온 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나누기도 하고, 현지에서 맛보았던 음식을 먹으며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지만,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 장소에 다시 가 보아도 그때의 감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간 것이다.

환경도 만만치 않다. 세계화의 물결, 실업의 증가, 심해지는 빈부 격차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직장을 그만 두고 장기 여행을 떠나는 것은 위험 부담률이 너무나 높다. 그런 파퓰러한 현실 속에서 과거의 추억을 그리다 보면 종종 한숨이 나온다. 더구나 장기 여행을 하다가 돌아온 여행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

와 제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방법은 다시 뿌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 뿌리를 내린다 함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만들고, 돈을 벌거나 이탈과 안주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움직이면서 뿌리내리기를 상상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또 떠나는 것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실행하는 것은 음과 양을 실 속에서 과거의 추억을 그리다 보면 종종 한숨이 나온다. 더구나 장기 여행을 하다가 돌아온 여행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

와 제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방법은 다시 뿌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 뿌리를 내린다 함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만들고, 돈을 벌거나 이탈과 안주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움직이면서 뿌리내리기를 상상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또 떠나는 것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실행하는 것은 음과 양을 실 속에서 과거의 추억을 그리다 보면 종종 한숨이 나온다. 더구나 장기 여행을 하다가 돌아온 여행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

역동적 뿌리내리기는 독일의 사회학자 짐멜이 얘기하는 ‘문’(門)의 율리를 통해서도 파악된다. 경계 없던 땅에 인간은 집을 짓고 문을 만들어 경계를 만들었다. 이전의 공간은 자연 그대로였다면 집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사람은 그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유향을 벗어나 무한을 접하는 느낌을 얻는다. 그 짜릿한 느낌과 활기·역동성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경계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스스로 ‘여는 행위’ 속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은가? 세상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관습·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떠나기보다는 문명·관습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 어진 것들이 어느새인가 인간을 억압한다. 본능에만 의지해서 사는 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탈출은 있을지언정 자유를 위한 이탈이나 방향은 없다. 광랑과 광항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며 무한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되고 그 강도를 높여 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문’과 같은 문명이라는 울타리나 궤도다.

그러므로 떠남 못지않게 일상의 뿌리 내리기도 사랑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떠나는 즐거움이 있다. 돌아갈 곳, 터전이 있어야 긴 여행도 즐거워진다. 여기를 떠나고, 현재와 미래(혹은 과거)를 구분하는 경계는 자연이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발생하며, 그 경계가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동시에 준다. 낮이 있어야 밤이 있고 밤이 있어야 낮이 있어서, 서로 상반된 것들은 모두 다 소중하다.

우리에게는 몸의 이동 못지않게 늘 ‘깨어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지로 자기를 구속하는 문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열고 닫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해방과 자유는 돌아다니는 데서 찾지지 않는다. 무한의 세계는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해방을 찾을 수 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여행자가>

의료칼럼

질병도 계절 탄다



강 채 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병치와 배가 갑자기 아프고 구토, 설사를 동반한다. 몹시 춥고 심하게 열이 나며,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고 쓰여 있다.

식중독 예방의 지름길은 음식의 선택·조리·보관 과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다. 세균은 주로 섭씨 40~60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저장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 60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출하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손 씻기는 필수다.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는 여름에는 지하수나 약수, 우물물 등을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식중독으로 인해 설사를 하다 보면 탈수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따뜻한 보리차를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냉방병을 서풍(颯風)이라 하여 적당히 몸을 내면서 기운을 돌리주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여름엔 몸을 적당히 흘려야 하는데, 찬 기운에 몸을 못 흘려서 생기는 병이 냉방병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말린 무는 무더위를 이기는데

더없이 좋은 먹거리이며, 냉방병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잔해지면 무말랭이를 물에 30분가량 담갔다가 꼭 짠 다음, 식초를 붓고 고춧가루 등으로 갖은 양념을 한 후 반찬으로 먹으면 좋다.

흔히 ‘여름 탄다’ 또는 ‘더위를 먹었다’고 하는 증세로 한방에서는 ‘주하병’이라고 한다. 대체로 땀으로 배출되는 열량에 비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기운 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할 때 잘 생긴다. 주증상은 입맛을 잃으면서 목만 찾게 되고, 머리가 자주 심하게 아프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걸음걸이가 무거워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다. 기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생기므로 보양식 등으로 기력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다.

더위를 먹었을 때나 갈증이 있을 때 효과적인 수박은 여름철 식품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수박에는 이노제 성분이 들어 있어 예로부터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많이 사용됐다. 더위를 먹었을 때 그냥 잘라서 먹어도 좋으며, 잘 익은 수박을 조려서 만든 수박당을 하루에 2~3회, 1큰술씩 먹거나 수박 사뭇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땀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각종 공해로 오염된 지구가 더워지면서 땀피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땀피는 땀샘에서 땀이 만들어져 피부 밖으로 나오는 한편이나 땀구멍을 각질과 먼지 등이 막아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땀이 피부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땀이 저류되고, 한편이 파열되면서 작은 물집, 구진, 발진 등이 생기는 것이다.

땀피를 치료하려면 주변 온도를 낮추고 몸을 차갑게 해주어야 한다. 땀을 흘리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베이비파우더나 녹말가루 등을 뿌려주어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얼음이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땀피가 생긴 부위를 찜질해 주거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 주위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땀이 적게 나오도록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땀피에는 녹두가루를 뿌리고 수포나 농포가 생겼을 때는 녹두죽을 먹으면 좋다. 또한 오이를 갈아 생즙을 내서 땀피가 난 부위에 발라주면 금방 가라앉는다.

기고

지역산업의 혁신 아이콘 ‘I-PLEX 광주’



박 정 한
광주시 기업육성과장

지역산업센터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을 고르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제한된 수도권과 밀역권역을 중심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한 지역에서 활발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나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역산업센터가 우리시에도 ‘I-PLEX 광주’라는 이름으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섰다. 동구 동명동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이전 자리에 2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만1650㎡(본관 6층, 별관 2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첨단산업단지라 하면 산업단지에서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립한 지식산업센터가 있었지만 도심 한가운데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산업연구원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부산, 대구와 함께 중소기업청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222억 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래, 지난해 3월 착공하여 1년 4개월의 공사를 6월에 끝마치고 가장 먼저 개관하게 되었다. 센터가 들어선 지역은 일찍이 고밀도

시가화가 시작된 원도심으로서, 개발가늠능력이 부족하고 개발비용이 높아 그동안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서비스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I-PLEX 광주’는 도시형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형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복합산업시설로서,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된 도심의 생활환경과도 조화될 수 있어, 전남도청 이전으로 한동안 기능이 쇠퇴했던 원도심을 경제적 측면에서 재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의 대학, 대학병원 등과의 산학협력력이 수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문화인프라는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과 청년창업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이다.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살려,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시설 외에도 스타트업 빌(카페형 창업공간), 비즈스튜디오(시제품제작실), 투자상담실(IR) 등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였다. 이러한 창업지원 공간은 수도권에도 여러 곳 들어서 있

지만, 사업화 단계에 들어선 기업과 창업 준비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협업, 교류, 채용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은 ‘I-PLEX 광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흐름은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전문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수행한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한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분석한 결과, ICT기반 제조, 생체의료소재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문화콘텐츠, 전문디자인 등을 타깃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산업시설이라고 하면 도심 외곽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어 왔지만, 이제 도심 한복판에 처음 들어서는 산업시설을 통해 지역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관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해야 할 일들은 더욱 많다. 우리시는 ‘I-PLEX 광주’라는 도가니에 융·복합과 지식기반이라는 광석을 넣어, 지역산업을 혁신하는 불꽃에 불꽃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社說

잇단 시내버스 화재 원인조차 모른대서야

잇그제 광주 시가지지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조치해 인명 피해는 비켜갈 수 있었다.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화재가 난 것은 지난해 7월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다. 문제는 이번에 불이 난 시내버스가 작년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가 차량 제작사인 현대차 측에 시정을 요구했던 버스와 비슷한 종류라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버스 화재 사고가 났던 현대차 대형 버스인 ‘유로5’ 차종이나, 최근 사고가 발생한 중형 버스 ‘글로벌 900’이 모두 엔진룸에 문제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크기만 달랐지 엔진룸 구조가 거의 동일한 두 차종의 버스는 엔진 출력을 높여 주는 터보장치 가 파손되면서 그 틈새로 1000도 가까이 뜨겁게 달궈진 오일이 고무 소재로 된 부품으로 흘러들어가 화재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도 현대차 측에 근본적인 예방책을 요구했었다. 이에 현대차는 터보장치와 고무소재 사이를 차단하는 철판을 설치하겠다는 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현대차 측은 차량 노후화 등으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다.

현재 광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1030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엔진룸 터보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2개 차종 버스는 551대로 절반이 넘는다. 따라서 날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은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버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확실한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내버스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만사를 제쳐 놓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시급하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 혁신도시 지역 국회의원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3%에 불과해 지역에 실망을 주고 있다”며 “35% 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니만큼 3당이 당론으로 채택,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터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 13%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한전·한전 KPS·한전 KDN·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겨우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

도시 조성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위해 지방을 떠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로 채용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지킬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혁신도시특별법에도 지역인재 채용 관련 조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사항인 탓에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장들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원내대표실과 정책위의장실을 잇달아 방문해 법제화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또한 지역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야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의 요구에 확실히 답해야 할 차례다.

無 等 鼓

얼마 전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에서 인상적인 곡을 만났다. 이날 콘서트는 창단 40주년을 기념해 며칠 뒤 일본 도쿄 예술극장에서 연주할 레퍼토리를 그대로 선보이는 자리였다.

김홍재 지휘자와 호흡을 맞춘 시향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을 들려줬고 앙코르 곡이 연주됐다. 처음 듣는 곡이긴 한데, 또 웅장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아름답지만 어쩐지 슬픈 멜로디가 감성을 건드렸고, ‘아리랑’ 같은 정서도 느껴졌다.

옆 자리에 앉은 6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았다. 아마도 일본에서 이 곡을 연주하면 교포들이 울컥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날 연주한 음악은 ‘임진강’이었다. 시향이 금금해 인터넷을 뒤졌다. ‘임진강’은 1956년 월북 시인 박세영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에 고종환이 곡을 붙인 북한 가곡이었다. 가사는 이렇다. “임진강 맑은 물은 / 흘러 흘러내리고 / 물새들 자유로이 / 날아들며 날지만 / 내 고향 남쪽 땅 / 가고파도 못 가니 / 임진강 흐름아 / 원한 신고 흐른다.” ‘임진강’은 1968년 일본 그룹 ‘더 포크

크루세이더스’가 불러 일본인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재일교포들의 애창곡이라고 한다. 또 영화 ‘박치기’에도 삽입됐고 국내 금지곡이 풀리면서 양희은·적우·임영주도 노래했다.

양희은의 라이브 영상을 찾아봤다. 그녀는 전주가 끝났는데도 울컥하며 노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 노래가 원래 그렇다”며 마음을 추스른 후 그녀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몇 년 전 광주 가수 인디언 수니를 인타뷰했을 때도 떠올랐다. 당시 그녀는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정선

대 할머니들을 위해 음악회를 열었고, 반평생 할머니들을 도와 온 일본인 후원회장을 함께 초대했다. 그때 회장이 꼭 듣고 싶다고 청한 곡이 ‘임진강’이었다. 그녀는 재판에서 이긴 날, 다시 회장을 초대해 ‘임진강’을 불렀다.

‘임진강’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잘못을 사죄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일본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노래 한 곡이 그 어떤 주장이나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음을 새삼 느낀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1번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